

우리의 **국외 사역**

큰은혜교회 

최정선 목사 (한국)

히라가타 순복음교회 

박경복 목사 (일본)

아가페교회 

윤상현 선교사 (필리핀)



컴패션과 함께 양육하는 16명의 아이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BRIANA	ESTEFANI	CAMILA	EMELY
GENESIS	NANCY	JENNSY	GAEL
JOSUE	ROBERTO	LIA	OSCAR
LUIS	YEFERSON	ORIANA	VALENTINA

우리의 **국내 사역**

홀리스 아웃리치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는 돌봄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장소: 산호세 St. 제임스 파크

지교회 (솔라노 큰빛은혜교회)

솔라노 지역 바카빌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사랑스러운 교회

주일 예배 시간: 오후 1시

장소: 78 Peabody Rd, Vacaville, CA 95687

캠퍼스 사역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깨어있는 시대정신과

영성을 통한 캠퍼스 복음화 사역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De Anza college

어라이즈 워십 & 악기클래스

베이지역에 찬양의 향기가 울려 퍼지며,
악기레슨을 통해 1인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교육관

MISSION STATEMENT

Bay Area Full Gospel Church
**W.O.R.L.D.
VISION**

Worshiping Church

예배하는 교회

Oikos Church

소그룹 교회

Reaching Out Church

돕는 교회

Life Giving Church

살리는 교회

Discipling Church

제자삼는 교회



 
큰빛은혜교회를
검색해보세요

주 일 1부	오전 9시	본 당
주 일 2부	오전 10시 30분	본 당
주 일 학 교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금 요	오후 7시 30분	본 당
새 벽	오전 6시 (월-금)	교육관 / YouTube Live

Bay Area Full Gospel Church

큰빛은혜교회

**Be still,
and know**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웹 바로가기

Senior Pastor

담 임 목 사 이기봉

Asistant Pastor

교 육 전도사 김태아 임성호 김승연
Sam Kim Grace Kim

지교회 전도사 이중록

 큰빛은혜교회

415 317 4631

www.bafgchurch.org

bafgchurch@gmail.com

125 E Arques Ave, Sunnyvale, CA

제 5호 24권

Vol. 5 No.24

6.14.2026

여는 기도
Opening Prayer

이중록 전도사
Jungrock Lee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같이
Together

대표 기도
Representative Prayer

김대환 집사
Daniel Kim

말씀
Sermon

거룩한 세우심
사도행전 1장 12~26절

담임목사
Serior Pastor

합심 기도
United Prayer

다같이
Together

봉헌 및 찬양
Offering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같이
Together

광고
Announcements

담임목사
Serior Pastor

* 찬양
Blessing Song

삼중 축복

다같이
Together

축도
Benediction

담임목사
Serior Pastor

* 자리에서 일어나서
* Please stand



기도 순서

	6/14	6/21	6/28	7/5(연합)	7/12
1부	이중록	김용현	김승연	-	임성호
2부	김대환	문하영	김예원	주보배	왕성균

교회소식

ANNOUNCEMENTS

1. 식탁 교제

예배 후 본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 청년부 수련회

일시: 6월 25일(목) ~ 27일(토)
문의: 임성호 전도사
수련회의 모든 일정과 안전을 위해 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유스 수련회

일시: 6월 26일(금) ~ 28일(주일)
문의: 김보라 전도사
수련회의 모든 일정과 안전을 위해 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4. 부흥회

일시: 7월 10일(금) ~ 12일(주일)
강사: 장창영 목사 (빛과소금의 교회)
장소: 큰빛은혜교회

5. 가정예배지

홈페이지에 가정예배지가 업데이트 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6월 생일

1일 장승현 성도

17일 김영미 권사

18일 문하영 성도

이번주 새벽기도회

월	화	수	목	금
요한복음 20:24-31	요한복음 21:1-8	요한복음 21:9-14	요한복음 21:15-19	요한복음 21:20-25
Grace Kim	임성호	이중록	임성호	김태아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6.14.2026

나이 들수록 빨라지는 시간

새해 첫날의 다짐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달력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시간은 마치 가속도가 붙은 자동차처럼 무서운 속도로 흘러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자네(Paul Janet)는
인간이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자신이 살아온 전체 수명에
반비례한다는 ‘자네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10세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10%이지만, 50세 성인에게 1년은 고작 2%
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접근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속도를 결정하는 진짜 열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방식, 즉 ‘경험의 질량 법칙’ 때문
입니다.

<루틴의 함정>

인간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며, 본능적으로 효율성을
극도로 추구합니다. 처음 마주하는 생소한 자극을 처리할 때 뇌는 풀가동
되며 상황을 꼼꼼하고 밀도 있게 기록합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보면
매일 가던 등굣길, 계절마다 바뀌던 동네 풍경, 친구들과의 사소한 놀이조
차 매번 새로웠습니다. 우리는 “그때 참 시간이 길고 풍성했다”고 인지하
게 됩니다.

반면 성인의 삶은 대개 ‘루틴’이라는 매끄럽고 편리한 궤도 위에서 움직입
니다. 똑같은 출근길, 늘 타던 자가용, 반복되는 업무, 주말이면 관성적으
로 찾는 익숙한 대형 쇼핑몰이나 OTT 화면, 뇌의 입장에서 이 익숙한 일상
들은 새로 기록할 가치가 없는 ‘중복 데이터’에 불과합니다. 한 달, 일 년이
통째로 편집실 가위질처럼 압축되어 잘려 나가니, 연말에 돌이켜보면 남
은 기억의 질량이 없어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지?”라며 소스라치게 놀
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익숙함에 안주한 삶은 물리적 시간을 압축시켜
인생을 스스로 짧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복에서 '순간'의 발견으로>

이 지독한 시간의 가속도를 멈추고 인생의 밀도를 되찾는 방법은 단 하나
뿐입니다. 의도적으로 삶에 ‘낯선 경험의 질량’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현
관문 밖 일상의 타임라인을 의도적으로 흔들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시간
의 밀도를 늘리는 일이 꼭 거창한 세계 여행이나 대단한 모험일 필요는 없
습니다. 매일 걷던 퇴근길 대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골목길로 발길을
돌려보는 것, 대형 프랜차이즈 대신 동네의 작은 로컬 브랜드 숍에 들어가
주인장의 취향을 엿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새로운 공간과 자극이
무의식의 영역을 깨우는 순간, 잠들어 있던 뇌의 기록 장치는 다시 경쾌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절대적인 흐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안을 채우는 주관적
시간의 길이는 철저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의
편안함 속에서 인생의 필름을 빠르게 감아버릴 것인가? 시간의
초속을 늦추고 싶다면, 오늘 당장 익숙한 궤도를 이탈해 당신의 뇌에 낯설
고 다정한 충격을 선물해 보길 바랍니다.